

5. 다섯째 노래 (6:4-8:4)

<남자> 6:4-9

개역	사역
4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4 나의 사랑아,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구나. 깃발을 든 군대처럼 ¹⁾ 엄위하다.
5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때 같고	5 너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나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너의 머리채는 길르앗에서 뛰어 내려오는 염소 때와 같구나.
6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때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6 너의 이는 목욕하고 올라오는 암양 때와 같고, 모두 짝을 이루니 하나도 빠진 것이 없구나.
7 너울 속의 너의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7 너울 속의 네 볼은 벌어진 석류 같구나.
8 왕후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8 왕비가 예순 명, 후궁이 여든 명, 궁녀는 ²⁾ 셀 수 없지만
9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 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팔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9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자는 오직 하나, 그 어머니에게 오직 하나인 딸, 그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즐거움이라네. ³⁾ 여인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송한다네.
10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10 새벽 빛처럼 솟아오르고 ⁴⁾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엄위한 이 여인은 누구인 가?

다섯째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4:1-5:1에 이어

- 1) 6:4의 ‘니더갈로트’는 깃발을 뜻하는 ‘데켈’의 니팔 분사형이다. 잘 조직되어서 깃발 아래 모인 군대를 표시한다. ‘데켈’이 남자에게 적용되었는데(2:4, 5:10) 여기에서는 여인에게 적용되었다. 6:10에도 같은 구문이 한 번 더 나와서 수미상관(inclusio)을 이루고 있다.
- 2) ‘알마’를 궁녀로 옮겼다. ‘암마’는 젊은 여인이라는 의미이다
- 3) ‘즐거움’을 번역한 말은 ‘바르’이다. ‘바르’에는 ‘순결하다’는 뜻이 있고 6:10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바르’에 ‘선택하다’는 의미도 있기에 ‘즐거움’으로 옮겼다.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문예적인 기교의 하나이다.
- 4) ‘솟아오르다’로 번역한 ‘샤카프’는 ‘내려다보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이 여인이 다른 여인보다 높은 지위에서 내려다 보는 이미지를 제시한다. 그런데 여인이 ‘새벽빛’(샤하르)로 비유되었기 때문에 ‘솟아오르다’로 번역하였다. NJB, NLT는 ‘arise like the dawn’으로 NIV는 ‘appears like the dawn’으로 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서 두 번째로 하는 노래[와즈프]이다. 그런데 첫째 와즈프와 비교하면, 머리털과 이와 뺨에 관한 묘사는 비슷하지만, 눈에 대한 묘사는 좀 더 강렬하게 나온다. 4장에서는 목과 입술과 입과 유방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여인의 엄위함을 강조하는 이 부분에서는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디르사와 예루살렘에 비하였다. 4:4에서는 여인의 목을 예루살렘의 망대에 비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두 산성에 비하였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오르리가 사마리아로 천도하기 전까지 수도였고(왕상 14:17; 16:6-23; 왕하 15:14-16), 발굴 결과 매우 아름답고 견고한 도시임이 드러났다.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조밀하게 건설된 아름다운 도성으로서 사람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곳이었다(시 122:3; 48:2; 50:2). 이처럼 여인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두 산성으로 표시한 것은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엄위가 있음을 나타낸다.

여인의 견고함과 위엄은 군대가 깃발(旗幟) 아래 모여 행진하는 것에 비교된다. ‘엄위’라고 번역한 말은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 올 때의 ‘두려움’과 같은 말이다(합 1:7). 여인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을 뿐 아니라 군대처럼 행진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원하는 것을 공략하는 군대와 같다.

여인의 위엄과 두려움은 눈에서도 나타난다. 남자는 여인의 열망이 눈빛을 통하여서 강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눈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한다. 4장에서는 여인의 눈빛이 매우 강렬해서 그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하였는데(4:9) 여기에서는 그 눈빛이 자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눈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한다. 4장에서는 너울 속에 있는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였는데(4:1) 여기에서는 여인의 눈빛이 강렬하여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어떤 여인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남자를 압도하여 지배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아가서의 이 여인은 너울로 자기의 강렬한 눈빛과 아름다움을 감출 줄도 알고 있다.

남자는 이어서 여인의 머리털을 묘사한다. 아마 여인이 남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머리털에 대한 묘사로 넘어간 것 같다. 여인의 머리털이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와 같다고 하고, 이어서 치아는 목욕하고 나온 양 떼처럼 희고 또한 빠진 것이 없다고 한다. 치아가 건강함을 들어서 여인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서로 걸으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머리털이 염소 떼처럼 움직이고 웃으면서 말하기 때문에 하얀 치아가 드러나는 것이다.

너울 속의 뺨은 석류 한 쪽과 같다고 한다. 여인의 강렬한 눈빛을 돌리라고 이야기하였던 남자는 이제 넉넉한 마음으로 여인의 머리털과 치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뺨의 홍조도 아름답게 말한다.

머리털과 이와 뺨에 대한 묘사는 4:2-3에 나오는 것과 같다. 여인의 위엄을 이야기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말하였다. 그러나 4장과 달리 여기에서는 입, 입술, 유방에 대한 묘사가 빠져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감각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다.⁵⁾

8-9절에서는 여인을 왕후와 비빈과 시녀들과 비교하여 말한다. 육십 왕후와 팔십 비빈과 무수한 시녀라고 하면서 ‘60 -> 80 -> 무수함’으로 연결한다. 왕궁에 있는 여인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 그렇지만 왕궁에서 호화롭게 꾸민 여인들이 무수히 늘어나도 ‘오직 하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많은 여인들은 ‘잠근 동산과 잠근 우물과 봉한 샘’으로서의 모습이 없다. 그들은 ‘오직 하나’로서의 독특함은 없고 왕이 상대하는 많은 여인들에 속할 뿐이다.

목동이 사랑하는 한 사람은 ‘나의 비둘기’이고 ‘나의 온전한 자’이다. 다른 여러 사람이 아니라 ‘나’와만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인이 어머니의 외동딸로서 사랑을 받은 사실을 기록한다. 그 여인을 낳고 가장 잘 아는 어머니도 자기 외동딸을 보고 즐거워한다. ‘즐거움’ 혹은 ‘귀중함’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10절의 ‘(해같이) 맑다’는 말과 같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여인은 맑게 형성되었고,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어머니에게는 이 여인이 다른 여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맑고 뛰어나고, 그 안에 안정함과 만족감이 있다. 어머니에게 ‘하나’인 이 여인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뿐’인 사람으로 사랑을 받는다. 어머니의 풍족한 사랑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풍족한 사랑으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을 보고서 예순 명의 왕비와 여든 명의 후궁, 그리고 무수한 궁녀들이 이 여인을 ‘복되다’ 하고 칭찬한다. 외적인 미가 아니라 엄위함과 단정함이 있는 것을 들어서 칭찬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서 칭찬하는 것이다.

6:10은 9절 뒷부분에 나오는 왕후와 비빈과 다른 여자들이 칭찬하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의 말일 수도 있다.⁶⁾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확정하지 않아도 이야기하려는 요지는 분명하다. 10절의 “깃발을 든 군대처럼 엄위한 여인”이라는 말은 4절에 나오는 남자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인은 각종 과실이 있는 동산으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5) J. Exum은 필사자의 실수로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4장의 묘사와 비슷한 점을 강조하려는 것에서 나온 무리한 주장이다. J. Exum, *Song of Songs*, 217.

6) J. Exum, *Song of Songs*, 216.

군대와 해와 달로 비유된다. 낙원과 다르사, 예루살렘과 같은 지상의 아름다운 것뿐 아니라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비기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단정함과 엄위로움이 있다.⁷⁾ 10절은 질문으로 끝나는데 그 답은 4절 전반부에서 찾을 수 있다.

9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외동딸은 ‘귀중하다’ 혹은 ‘맑다’[바르]고 하였는데 10절에 ‘해같이 맑다’[바르]고 하면서 같은 표현이 나온다. 여인이 아침빛같이 분명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것과 연결이 된다. 여인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표현되는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과 기품이 있는 자태에 있다.

엄격함과 기품이 있는 사랑

남자는 여인의 엄위함과 기품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보면서 높인다. 여인의 약한 것을 지적하거나 자기의 강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견고함과 엄위로움을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칭송한다. 여인을 성과 군대에 비유하면서 고고함과 기품이 있다고 말한다. 너무 고고하게 군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고귀함을 아름다움의 핵심으로 칭찬한다. 사랑하는 여인의 엄위함과 기품에 관하여 노래하는 것은 성적인 매력을 아름다움의 잣대로 삼는 세상의 잣대와는 매우 다르다.

그런데 그 여인의 엄위함에도 제한이 있다. 남자는 여인에게 강렬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말했는데,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린다. 여인은 자기의 힘으로 남자를 누르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자 남자는 여인의 머리카락과 치아와 뺨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내주장(內主張)을 하고 나서지도 않고 여인의 당당함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 사람과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어머니의 외동딸로서 사랑을 받고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이 여인에게는 만족함이 있다. 어렸을 때에 사랑을 풍족하게 받고 안정된 심성을 갖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 유아기 때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은 평생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이 여인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뿐’인 사람으로 사랑을 받는다. 궁중의 여인들은 한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름답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7) I. Porvan, *Ecclesiastes, Song of Songs*, 338.

데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면서 한 몸으로 연합하고 함께 피어나고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인의 입과 입술과 유방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부의 사랑에서 성적인 즐거움과 연합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왕비나 후궁들은 성적인 대상이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은 없다. 사랑은 성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상대를 존귀하게 보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두 사람의 사랑도 무너진다. 성적인 매력만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요즈음의 세대에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남자) 6:11-12 (?)

개역	사역
11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 갔을 때에	11 나는 호두나무 정원으로 내려갔네. 대추 야자의 ⁸⁾ 새싹을 보려고, 포도 나무에 싹이 나고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를 보려고.
12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12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나를 암미나답의 마차에 오르게 하였네.

이 부분은 아가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암미나답의 수레’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알기 어렵다. 일단은 남자로 생각하고서 이 구절을 살피겠다.

남자는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갔다. 여기에서 동산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기쁨이 있는 여자가 바로 자기의 동산이다. 동산에는 포도나무와 석류나무와 호두나무가 있다. 남자는 그 동산의 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혹은 꽃이 피었는지를 보려고 그 동산으로 내려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미나답의 마차’에 올랐다. ‘암미나답’은 ‘내 귀한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다. 남자를 주어로 본다면 남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미나답의 마차에 오르게 되었다는 말이다. 남자가 존귀한 마차를 타고서 여인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여자를 주인공으로 본다면, 여자가 부지 중에 존귀한 마차를 타게 되었고, 거기에서 남자를

8) ‘대추 야자’로 번역한 말은 ‘나하르’ 곧 ‘하천’의 의미도 있다. 개역은 후자의 의미를 따라서 ‘골짜기’로 번역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민수기 24:5에서는 계절천과 정원이 붙어서 나온다.

영접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 부분은 모호하게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합창> 6:13 (?)

개역	사역
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13 돌아와요, 돌아와요, ⁹⁾ 술람밧 여인이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 도록.

“돌아와요”라는 말은 사람들이 여인을 부르는 말이다. 수레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에 부르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몸을 돌리시오”라는 말로 해석하면 14절에서 춤을 추는데 뒤로 돌아보라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여인의 이름을 술람미 여자라고 밝힌다. ‘술라미트’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술람’(완전함)에 지명의 접미사(gentilic suffix) ‘이트’가 붙어서 ‘완전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¹⁰⁾ 둘째는 ‘샬렘’(평화)이라는 어근에 수동형 분사 형태로 변형하고 여성형 형용사 어미(feminine adjectival suffix) ‘이트’를 붙여서 ‘평화로운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다.¹¹⁾ 셋째는 ‘셜로모’의 여성 형태가 ‘술라미트’로 보는 것이다. 유다의 여성형이 ‘유딧’인 것처럼 술라미트도 솔로몬의 여성형으로 읽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솔로몬과 짝을 잘 이루는 여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12세기의 무명의 주석자는 “술라미트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넷째는 수넴 사람을 가리키는 ‘슈나미트’의 다른 형태로 ‘술라미트’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에 수넴 여인 아비삭이 나오는데(왕상 2:13-25) 그 여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¹²⁾ 이것은 솔로몬과 수넴 여인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하고서 읽은 것이다.¹³⁾ 이 외에도 술라미트가 이쉬타르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면서 이교적 제의와 연결시키는 해석이 있지만¹⁴⁾ 그것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여러 해석 가운데서 첫째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

9) ‘슈브’는 말은 멀리 간 사람에게 돌아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몸을 돌리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후반절의 춤을 추는 장면과 연결된다.

10) M. V. Fox, *The Song of Songs and the Egyptian Love Songs*, 157-58.

11) 불가타 번역이 이러한 해석을 취하여서 ‘평화로운 자’라는 의미로 *pacificus*로 번역하였다.

12) ‘술라미트’와 ‘슈나미트’는 ‘눈’(n)과 ‘라메트’(l)로 철자가 다르지만 비음 문자인 ‘눈’이 쉽게 동화되거나 수넴 이후에 ‘술렘’으로 불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철자의 차이가 결정적인 반론은 되지 못한다.

13) E. J. Goodspeed, “The Shulammitte,” *The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 50 (1933): 102-104; H. H. Rowley, “The Meaning of ‘The Shulammitte,’” *A/SL* 56 (1938): 84-91.

14) T. J. Meek, “Canticles and the Tammuz Cult,” *A/SL* 39 (1922-23): 1-14;

오는 여인에 대한 묘사는 거의 완전해 가깝기 때문이다.

<남자> 6:14

개역	사역
14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14 너희는 어찌하여 마치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처럼 ¹⁵⁾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느냐?

돌아오라는 사람들의 부름에 대해서 남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고 반문을 한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압복 강 나무의 지명을 의미할 수도 있고(창 32:7) ‘두 무리’라는 일반적인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 마하나임의 춤은 오늘날에는 알 수 없는 춤이다. 남자는 자기의 여인을 춤추는 사람처럼 보지 말라고 한다. 여인은 자기에게 속한 “귀한 자의 딸”이며 다른 사람의 눈에 즐거움을 주는 춤추는 자가 아닌 것이다.

<남자> 7:1-7:9

개역	사역
1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2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3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4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의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5 머리는 갈멜 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6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 존귀한 여인이여, ¹⁶⁾ 신을 신은 그대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대의 둥근 허벅지는 장인이 손으로 빚은 장신구 같구나. 2 그대의 배꼽은 둥근 그릇, 혼합한 포도주가 마르지 않는구나. 그대의 배는 밀단, 백합화로 둘렀구나. 3 그대의 두 젖가슴은 사슴 한 쌍, 쌍둥이 노루와 같구나. 4 그대의 목은 상아 망대와 같고 그대의 두 눈은 바트라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의 우물과 같고 그대의 코는 다메섹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와 같구나. 5 그대의 갈멜 산처럼 그대를 관 씌우고 그대의 드리워진 머리채는 자색 실과 같아서

15) ‘키며호라트 마하나임’은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다. ‘키며호라트’는 직역하면 ‘춤추는 것처럼’이다. ‘하마하 나님’에서 ‘마하나님’을 지명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쌍수를 살려서 ‘두 줄, 혹은 두 무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 두 단어가 연계형으로 연결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또 다른 난제이다.

<p>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7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p> <p>8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9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p> <p>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p>	<p>임금이 그 머리 단에 사로잡히고 말았구나. 6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즐겁다, 오 사랑, 즐거움과 함께!¹⁷⁾</p> <p>7 그대의 키는 대추야자 같고 그대의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8 “내가 대추야자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고 내가 말하였네 그대의 젖가슴은 포도나무의 포도송이와 같고 그대 코의 향기는 사과나무와 같구나. 9 그대의 입속은 좋은 포도주와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연인에게¹⁸⁾ 잔잔히 흘러가는 잠자는 이의 입술로 흘러드는 포도주라네.</p>
--	--

7:1-9에서 다시 한 번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묘사를 한다(참조 4:1-5; 5:10-16; 6:4-7). 그런 데 이 부분에서 묘사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관계를 암시한다. 14절에서 사람들은 여인에게서 춤추는 것을 기대하였지만, 여기에서 춤추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은 하나도 없다.

“귀한 자의 딸”로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1-5절까지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신을 신은 발, 허벅지, 배꼽, 배, 유방, 목, 눈, 코, 머리의 순으로 자연의 이미지를 빌어서 묘사한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고 노래한다. 둥근 허벅지는 재주가 좋은 보석 세공인이 만든 구슬껍미와 같다고 하였다. 여인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도 함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¹⁹⁾

이어서 배꼽, 배, 젖가슴을 그려낸다. 둥근 배꼽은 혼합한 포도주를 담고 있다고 하고, 허리는 곡식단을 묶은 것처럼 잘룩한데 그 주위를 백합화로 둘렀다고 노래한다. 두 젖가슴은 쌍둥이 노루처럼 부드럽게 솟아있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고 그려낸다.

여인의 목은 상아처럼 모양이 자연스럽고 우아하며 망대처럼 견고하다. 눈을 연못으로 비유를 해서 여인의 아름다움은 연못과 같이 깊고 마음은 잔잔하고 고요하다고 노래하였

16) ‘바트 나디브’(존귀한 여인)에서 ‘나디브’는 ‘암미 나디브’(내 백성의 존귀한 자)와 연결된다.

17) ‘바타야누김’은 ‘타야누그(즐거움, 환희)와 함께’라는 뜻인데 ‘바트 타야누김’(בַּת תַּעֲנוּגִים)으로 읽기도 한다. ‘타우’를 한 번 더 넣어서 읽는 것인데 ‘희락의 딸’이라는 뜻이 된다. Aquila가 ‘희락의 딸’이라는 번역을 취하였으나 맛소라 본문은 ‘즐거움과 함께’이다.

18) ‘나의 사랑하는 연인’(도디)는 여인이 남자를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여인의 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남자의 말을 여인이 이어서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 R. Hess, *Song of Songs*, 213.

다. 연못이 다른 것을 수용하고 생명과 아름다움을 주는 것처럼, 여인에게도 그러한 잔잔함과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다. 코는 레바논 산에 있는 망대처럼 우뚝 솟아 있다.

여기에서 ‘목 - 눈 - 코’의 순서로 묘사한다. 목과 코를 망대로 묘사하고 연못으로 비유된 눈은 망대로 둘러싸여 있다. 전략적인 곳에 망대를 세워서 지키는 것처럼, 그 여인의 눈은 보호되어 있다. 앞에서 다리와 허리와 유방은 육감적으로 묘사하였지만, 얼굴 부분은 고요하고 깊이가 있고 위엄이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 그윽하고 깊은 눈길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눈길도 망대로 보호된다.

머리털은 왕의 색인 자주 빛을 띠고 있고 왕으로 비유된 신랑은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 자주색 실[아르가멘은 성전에서 사용된 실이나(출 35:25; 39:3) 자주색 옷감을 가리키기도 하는데(민 4:13; 예 8:15) 여기에서는 자주색으로 물들인 머리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귀한 자의 딸”로 불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왕으로 비유된 신랑을 사로잡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로잡힌 왕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 열매가 있는 종려나무와 같고 거기에 이끌린 남자는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가 얻은 것은 종려나무의 열매뿐 아니라 포도송이와 사과와 포도주였다. 그 포도주는 잠자는 사람도 깨우는 힘이 있다. 두 사람은 콧김을 느낄 정도로 매우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

7장의 본문을 보면 여인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그 여인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있다. 춤추는 여인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내보이지만 여기에서는 한 사람과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아가서에서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감추지 않고 묘사한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것도 좋지 않지만,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피하여야 한다. 가장 고귀한 것은 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다. 여인에 대한 묘사는 사랑하는 한 사람과 나누는 입맞춤으로 끝난다.

<여인> 7:10-13

개역	사역
10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10 나는 나의 연인의 것, 그는 나를 간절히 열망한다네. ²⁰⁾
11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11 나의 연인이여, 감시다. 들판으로 함께 나아가서 시골 마을에서 밤을 지냅시다.
12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12 아침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p>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p> <p>13 함환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 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p>	<p>그 꽃송이가 열렸는지, 석류나무의 꽃이 피었는지 봅시다.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 다.</p> <p>13 함환채가 향기를 내뿜고 우리의 문앞에는 각종 과일이 있습니다. 햇것도 묵은 것도 있는데, 나의 연인이여, 내가 그대를 위하여 간직한 것들이랍니다.</p>
---	--

앞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요새에 비유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올 것을 간청하기도 하였는데 7:9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말을 이어서 그와 입 맞추는 것을 이야기한다. 남자의 말이 여자의 입맞춤에 대한 말 때문에 중단된 셈이다. 그러나 중단된 그 이야기는 사랑하는 여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완성된다.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사모’한다는 것을 알았다(7:7-9). 여인은 자기를 원하는 남자에게 밖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2:10-13에서도 들에 나가서 봄을 맞은 자연만물이 서로 짝을 찾는 모습을 노래하였는데, 여기에서도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는지 보러 나가자고 한다. 2장에서는 남자가 나가자고 초청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여인이 남자에게 초청을 한다. 전에는 여인이 수동적이었는데(2:14; 5:3 등)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판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남자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여인은 포도나무, 석류, 함환채, 문 앞의 귀한 과실들을 들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다.

여인은 들판으로 나가 거기에 있는 동네에서 밤을 지낸 다음에 아침에 포도원으로 가지고 한다. 아침 일찍 해가 떠오르면 꽃잎도 하나씩 열리는데, 그것을 보러 가자고 한다. 여인이 초청한 곳은 여인이 그의 오라버니가 시켜서 포도원지기로 일하였던 그 포도원일 수 있다. 자기가 일하던 포도원에 함께 가서 넉넉한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한다. 아가서에서 포도원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에서도 포도원은 바로 여인 자신을 가리킨다.

여인은 또한 석류꽃이 피었는지를 보자고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사모하는 남자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겠다고 한다. 에덴동산의 배경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석류에 박힌

20) ‘간절히 열망한다’고 옮긴 말은 ‘더슈카’이다. 창세기 3:16과 4:7에 나오는 이 단어는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욕구가 포함된 말이다. 창세기 3:16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열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남자가 여인을 열망한다. 주체와 객체가 바뀐 것에 주목하여 해석을 더한다면, 창세기 3:16에 표시된 심판의 선언이 참된 사랑을 통하여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James M. Hamilton, Jr., “The Messianic Music of the Song of Songs: A Non-Allegorical Interpretation”, *WTJ* 68 (2006), 344.

많은 씨가 나타내는 풍요와 다산의 배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 포도나무에 순이 나고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를 알아보려고 찾아온 남자를 바로 그 석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다(참조 6:11). 꽃이 핀 포도나무와 석류나무는 열매를 갈망하여서 향기를 토하고 벌과 나비를 초청한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갈망하면서 꽃이 피었는가를 보러 가자는 말로 남자를 초대한다.

합환채가 향기를 품어내는 곳에서 여인은 자기의 사랑을 준다. 향기를 토하는 합환채는 두 사람이 부부로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상징한다(7:13. 참조 창 30:14-16).

우리의 문 앞에는 각종 귀한 과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쌓아 둔 것이라고 한다(7:12). 여기에서도 문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도 되지만, 여인이 자기를 여는 것도 가리킨다. ‘문’이라고 번역한 말은 직역하면 ‘열림’이기 때문에 여인이 자기를 여는 것을 가리킨다. 전에는 문을 열어주는 것을 망설였지만(5:2-7) 지금은 문 앞에 각종 귀한 과일들을 두고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 옛 과일로 상징되는 과거의 기쁨만 아니라 새로운 과일로 표현되는 또 다른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포도나무와 석류의 꽃을 보러 들뜬 나간 그들은 거기에서 사랑을 나눈다. 에덴의 배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있다(참조 1:17). 꽃이 향기를 품는 것은 열매를 맺으려는 것인데, 여인은 그러한 향기를 내품으면서 각종 과실로 단장하고서 남자에게 문을 열어 준다. 겨우내 속으로 쌓아두었던 힘을 싹과 꽃으로 피어내면서 결실로 향하려는 계절에 두 남녀도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그들의 사랑을 쏟아 낸다.²¹⁾

사랑과 사모함

세상에서는 성과 권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독재자들이 많은 여인을 거느리려고 하는 것도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의 권력과 많은 후궁의 관계를 지적하였다.

7:10의 ‘사모’(테슈카)라는 말도 권력과 관련된 말이다. 창세기 3:16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인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여인이 남자를 사모하는 것은 ‘내주장’(內主張)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사모함이 있으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죄가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경고하여 주시고, 죄를 다스리도록 하셨다(창 4:7).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었다.

21) T. Gledhill, *Song of Songs*, 211-12.

‘사모’라는 말이 권력의 행사와 관련이 있음을 이러한 용례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여인은 남자에게 자기에 대한 지배 욕구가 있음을 알았다. 여인은 거기에 대하여서 반발한 것이 아니라 들판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산보를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준다. 가인은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하여서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는데, 여인은 들로 나가서 사랑을 준다. 남자의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낙원의 모습이 회복됨이 나타난다.²²⁾

아가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속하였다고 노래하고, 남자의 사모함을 여인이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자발적으로 주었는데,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가르쳤다. 자기의 몸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대가 주장하라고 하였다(고전 7:2-4).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이러한 태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엡 5:22-33).²³⁾

부부의 관계는 직분적인 연합이다. 힘과 능력의 면에서 보면 서로 다투는 것만 있고 서로를 주장하려고 한다.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은 능력이 있고 엄위함이 있는 여인이지만 사랑하는 남자의 ‘사모함’ 곧 지배하려는 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준다. 이것이 부부 관계의 완성이다. 남자와 여자가 능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어느 부분에서는 여자의 능력이 남자보다 더 뛰어나기도 하지만, 부부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의 관점에서 연합이 되어서 살아간다. 바로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 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여인> 8:1-4

개역	사역
1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1 그대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내 오라비와 같 았다면, 내가 거리에서 그대를 만나 입을 맞추더라도 아무도 나를 경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石榴汁)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2 내가 그대를 내 어머니의 집으로 곧 나를 가르치던 분의 집으로 ²⁴⁾ 인도하여 들이고 혼합한 포도주와 나의 석류즙을 그대에게 마 시게 하였을 것입니다.
3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3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줄 것입니다. ²⁵⁾
4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22) I. Provan, *Ecclesiastes, Song of Songs*, 357-58.

23) R. Hess, *Song of Songs*, 224.

24) ‘터람메데니’는 3인칭 여성 미완료형 혹은 2인칭 남성 미완료형이다. 한글 개역과 JPS에서는 2인칭 남성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4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사랑을 일깨우거나 일어나게 하지 마라. ²⁶⁾
---------------------------------------	---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서 1장의 주제가 다시 나온다. 1:2, 4에서도 입맞춤을 포도주와 비교하였는데 8:1-2에서도 입맞춤과 포도주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맞추는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아버지나 오라버니와 같은 가족으로만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오라비와 같아서 그와 공개적으로 입맞춤을 하기 원한다. 두 사람의 사랑이 공적으로 인정 받기를 원한 것이다. 남자가 여인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4:9), 여인은 남자를 ‘나의 오라비’라고 부르기를 원한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남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이끌어 들이고 자기를 양육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흔한 포도주와 자기의 석류즙을 주어 마시게 하겠다고 밝힌다. ‘나의 석류즙’이라고 하여서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사랑을 암시한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져서 남자가 왼손으로 여자를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 주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아가서의 중요한 후렴구가 다시 나온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때가 되기 전에는 사랑을 불사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다. 이 말이 아가서에서 세 번 나오는데 8:4은 마지막 문구이다. 이것에 대한 해답이 8:5-7에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노루와 들 사슴’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2:7, 3:5에서는 노루와 들 사슴으로 맹세하게 하면서 사랑을 일깨우지 말라고 하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루와 들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여호와와 불’과 같다고 가르친다. 독자들로 하여금 절정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도록 다섯째 노래를 마무리한다.

로 번역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젖을 오라비와 같기를 바랐고, 어머니에게 배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흔한 포도주와 석류즙을 주기 원함을 밝히기 때문에 3인칭 여성 단수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완료형은 (1) ‘그가 가르칠 것이라’ 하고 미래로 번역할 수도 있고 (2) ‘나를 가르쳐 주었다’ 하고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더 어울린다.

또한 이 구절은 동사의 주어가 선행사(나의 어머니)에 대한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구문이다(casus pendus). 사역에서는 어머니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따로 번역하고 ‘집’을 한 번 더 반복하였다.

25)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한 주석은 2:7; 3:5를 참조하십시오.

26) 직역하면, “왜 일깨우고 일어나게 하겠느냐?”이다. ‘마’가 ‘왜, 어떻게’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문맥에서 ‘아니’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욥 31:3; 출 15:24; 왕상 12:16 등 참조. HALOT, ‘Mah’ c를 보시오.